



행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은 1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주말장터를, 내년 1월 13일부터 3일 동안 ‘신년맞이 축제’를 개최한다.

이런 이벤트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상인과 소비자들은 현지 농어업인과 도시민들을 직접 연결해서 마진을 최소화해 생산자에게는 고액의 판매, 소비자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변완영 기자 byon333@hanmail.net

<저작권자 © 마포땡큐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